

국내 신규 박사의 양성과 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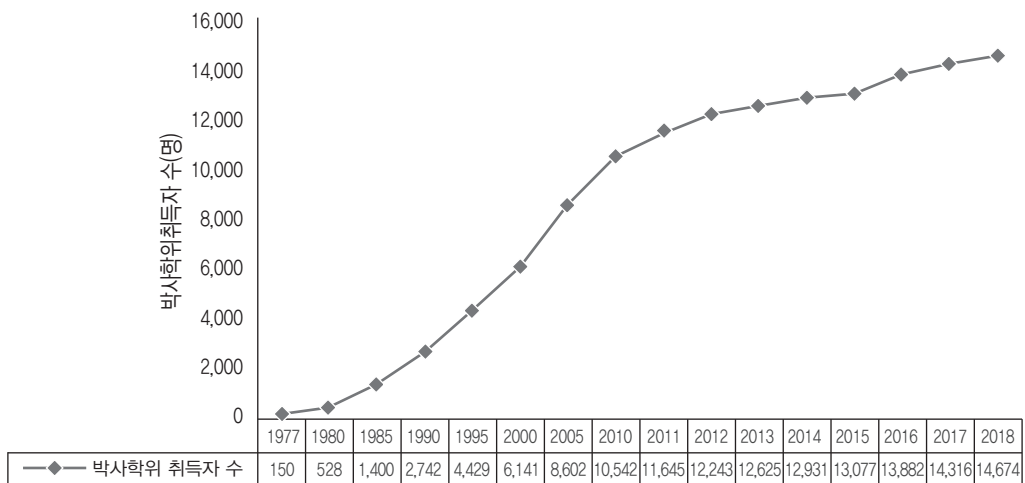
송창용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김혜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I. 서론

□ 1980년대 이후 국내 대학에서의 박사학위 취득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해 옴.

○ 1980년대부터 2010년까지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지만, 2010년도 이후부터 그 증가세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연도별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 수



자료: KEDI, 교육통계연보(각 연도)

□ **국내 대학에서의 박사학위 취득자 증가 폭이 작아지고 있으나 당분간 상승 추세는 유지할 것으로 보임.**

-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 수가 2000년 6,141명에서 2017년 14,316명으로 133.1% 증가함.
 - 특히 2010년도 이후(2010~2017년도)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4.47%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반면 2010년도 이후(2010~2017년도) 미국 대학의 한국인 박사학위 취득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2.87%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2013년을 기점으로 감소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남.
- 단기적으로 국내 대학의 박사학위 취득자 수는 연 2~3%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표 1〉 연도별 학위 취득자 수 및 증가율

(단위: 명, %)

학위 구분	2010년 (A)	2013년 (B)	2017년 (C)	연평균 증가율 (A, B)	연평균 증가율 (B, C)	연평균 증가율 (A, C)
국내 대학 박사학위 취득자	10,542	12,625	14,316	6.19	3.19	4.47
미국 대학 내 한국인 박사학위 취득자	1,381	1,383	1,126	0.05	-5.01	-2.87

자료: KEDI, 교육통계연보(각 연도) 및 NSF·NCSES, SED, 2017

II. 분석 자료 및 분석 대상의 기본 특성

□ 본고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국내신규박사학위 취득자조사(2019)」를 이용하여 국내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의 양성 및 진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 분석 대상은 2018년 8월 및 2019년 2월 박사학위 취득자로 응답자 8,379명임(외국인 및 국적 무응답 박사학위 취득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 ‘국내신규박사학위 취득자조사’(국가승인통계: 승인번호 920009)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연 2회 국내 신규박사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수조사로, 박사학위 취득자의 학업 과정 및 취업 상태, 향후 진로 등을 조사함.

○ 본 보고서에서 학위 취득 연령 및 소요 기간, 박사학위 과정 진학 동기, 취업 상태, 고용 상태, 직장 유형, 임금, 박사후과정(Post-doc) 계획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외국인 박사학위 취득자를 제외한 응답자 8,379명의 기본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성별로는 남성 63.0%, 여성 37.0%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6:4로 남성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직장 여부별로는 학업전념자 47.2%, 직장병행자 52.8%로 박사과정과 직장을 병행한 박사학위 취득자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30세 미만 4.2%, 30~39세 미만 48.5%, 40~49세 미만 25.8%, 50세 이상 21.6%로 40세 미만 박사학위 취득자 비율이 전체의 52.7%를 차지하며, 평균 연령은 41.2세인 것으로 나타남.

- 대학원 유형별로는 일반대학원 91.2%, 전문대학원 8.8%로 박사학위 취득자 대부분이 일반대학원 졸업자인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수도권 53.9%, 비수도권 46.1%로 수도권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응답자의 비율이 비수도권 대학보다 7.8%p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계열별로는 공학계열의 비율이 32.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사회계열 20.1%, 자연계열 15.8%, 의약계열 12.6%, 인문계열 7.0%, 교육(사범)계열 6.1%, 예술/체육계열 6.0% 순임.

〈표 2〉 응답자의 기본 특성

(단위: 명, %, 세)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체		8,379	100.0	대학원 유형	일반	7,629	91.2
성별	남성	5,277	63.0		전문	734	8.8
	여성	3,102	37.0		지역	수도권	4,517
직장 여부	학업전념	3,943	47.2	비수도권		3,862	46.1
	직장병행	4,402	52.8	전공 계열 예술/체육	인문	588	7.0
연령	30세 미만	349	4.2		사회	1,685	20.1
	30~39세	4,064	48.5		공학	2,713	32.4
	40~49세	2,159	25.8		자연	1,321	15.8
	50세 이상	1,807	21.6		의약	1,056	12.6
	평균	41.2			교육(사범)	511	6.1
				505	6.0		

Ⅲ. 신규 박사인력 양성

□ 진학 동기

- 박사학위 취득자 중 40.9%가 ‘전문성 향상을 위해’, 33.9%가 ‘교수·연구원이 되기 위해’ 박사학위 과정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남.
 - 학업전념자의 경우 박사학위 취득자의 절반가량인 43.9%가 ‘교수·연구원이 되기 위해’ 박사학위 과정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나 특정 직종으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남.
 - 직장병행자의 경우 ‘전문성 향상을 위해’ 박사학위 과정에 진학한 경우가 49.1%로 가장 높게 나타나 학업전념자와 진학 목적에 있어 다소 차이를 보임.

〈표 3〉 진학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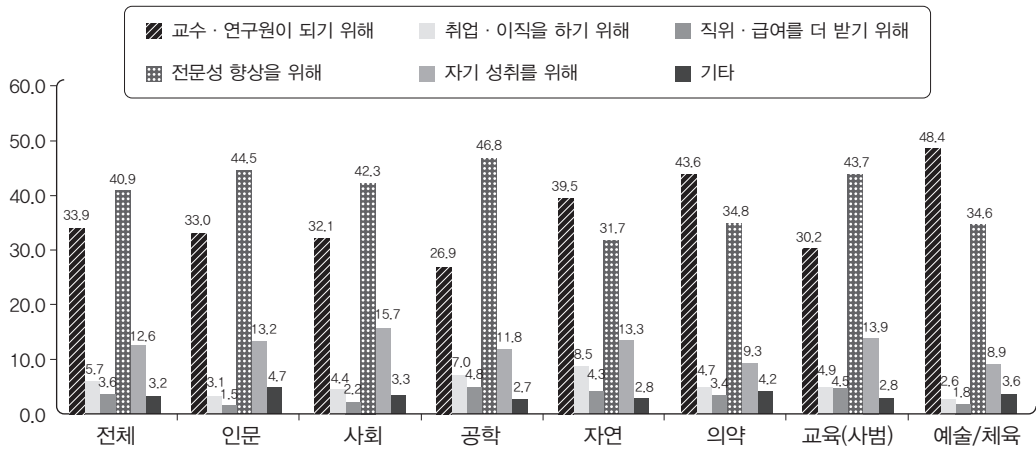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전체	학업전념	직장병행
교수·연구원이 되기 위해	33.9	43.9	25.0
취업·이직을 하기 위해	5.7	7.9	3.8
직위·급여를 더 받기 위해	3.6	2.9	4.3
명예를 얻기 위해	0.8	0.5	1.1
전문성 향상을 위해	40.9	31.9	49.1
자격증 취득을 위해	0.3	0.1	0.5
자기 성취를 위해	12.6	10.6	14.2
기타	2.1	2.1	2.0

- 계열별로는 예술/체육계열 48.4%, 의약계열 43.6%, 자연계열 39.5%의 박사학위 취득자들이 ‘교수·연구원이 되기 위해’ 박사과정에 진학한 비율이 타 계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그 외의 전공계열에서는 ‘전문성 향상을 위해’ 박사과정에 진학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2] 전공계열별 진학 동기

(단위: %)



주: '기타'는 '명예를 얻기 위해', '자격증 취득을 위해', '그 외 기타'를 모두 포함함.

□ 학위 취득 연령 및 소요 기간

○ 전체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의 학위 취득 당시 평균 연령은 41.2세로 학위 취득까지 62.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 박사학위 취득 평균 연령 및 소요 기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계열별로는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약계열의 학위 취득 평균 연령이 각각 36.1세, 37.5세, 38.9세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인문 및 사회 계열의 학위 취득 평균 연령은 각각 48.5세와 48.4세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학위 취득 소요 기간은 인문계열이 72.9개월로 가장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남.

○ 학업전념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의 학위 취득 당시 평균 연령은 35.3세로 학위 취득까지 61.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조사·통계 브리프

- 성별 박사학위 취득 연령은 남성 34.2세, 여성 37.3세로 남성이 여성보다 박사학위 취득 시기가 빠른 것으로 나타남.
- 계열별 학위 취득 평균 연령은 공학계열이 33.0세로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인문계열은 45.7세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위 취득까지 소요 기간도 72.3개월로 가장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남.
- ※ 미국 박사학위 취득자의 연령 중위수는 31.6세¹⁾이며, 국내 학업전념 박사학위 취득자의 연령 중위수는 33.0세임.
-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 중 직장병행자의 학위 취득 당시 평균 연령은 46.4세로 학위 취득까지 63.9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 박사학위 취득 연령은 남성 47.5세, 여성 44.6세로 남성의 평균 연령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요 기간도 남성이 평균 2.0개월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남.
 - 계열별 박사학위 취득 연령은 의약계열이 40.6세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위 취득까지의 소요 기간은 인문계열이 72.7개월로 가장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남.

〈표 4〉 학위 취득 연령과 소요 기간

(단위: 세, 개월)

구분	전체		학업전념		직장병행		
	취득 연령	소요 기간	취득 연령	소요 기간	취득 연령	소요 기간	
전체	41.2	62.8	35.3	61.6	46.4	63.9	
성별	남성	41.1	63.1	34.2	61.4	47.5	64.6
	여성	41.2	62.4	37.3	61.8	44.6	62.6

〈표 계속〉

1) National Science Foundation, National Center for Science and Engineering Statistics, Survey of Earned Doctorates, 2017.

전공계열	인문	48.5	72.9	45.7	72.3	50.1	72.7
	사회	48.4	57.4	41.3	59.5	50.5	56.7
	공학	37.5	64.5	33.0	61.6	46.2	70.2
	자연	36.1	65.9	33.2	63.5	43.8	72.5
	의약	38.9	55.8	34.8	52.7	40.6	57.2
	교육(사범)	44.9	66.4	41.5	58.0	46.0	69.1
	예술/체육	42.4	62.8	40.6	61.1	43.3	63.5

IV. 신규 박사인력의 진로

□ 고용률과 종사상 지위

○ 전체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 고용률은 72.4%인데, 이 중 상용근로자가 66.0%, 임시근로자 20.4%, 자영업자 11.4%로 나타남.

– 성별 고용률은 남성 75.0%, 여성 67.9%로 남성이 여성보다 7.1%p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용직 비율도 남성이 여성보다 15.1%p 높게 나타남.

– 계열별 고용률은 의약계열이 8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문계열이 63.9%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취업통계연보(2018)에 의하면, 2017년도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취득자의 취업률은 80.6%임..

- 취업률은 교내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인 창작활동 종사자, 1인 창(사)업자, 프리랜서를 포함하여 산출한 수치
- 비임금근로자에 속하는 개인창작활동종사자, 1인창(사)업자, 프리랜서의 규모가 전체 취업자 대비 5.4%에 달함.

○ 학업전년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 고용률은 54.2%인데, 이 중 상용근로자가 56.7%, 임시근로자 37.7%, 자영업자 2.1%로 임시근로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조사·통계 브리프

- 성별 고용률은 남성 56.9%, 여성 49.5%로 남성이 여성보다 7.4%p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용직 비율도 남성이 여성보다 25.1%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계열별 고용률은 공학계열이 57.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예술/체육계열이 42.0%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표 5〉 박사 고용률 및 종사상 지위

(단위: %)

구분	전체	학업 전념			직장 병행								
		상용	임시	자영업	상용	임시	자영업						
전체	72.4	66.0	20.4	11.4	54.2	56.7	37.7	2.1	88.8	71.0	11.0	16.5	
성별	남성	75.0	71.2	15.7	11.8	56.9	65.0	31.2	1.5	91.7	74.7	6.8	17.6
	여성	67.9	56.1	29.3	10.8	49.5	39.9	50.6	3.1	84.0	64.3	18.5	14.6
전공 계열	인문	63.9	42.6	33.5	17.0	46.4	19.6	62.7	4.9	75.2	50.9	22.7	21.6
	사회	76.4	63.7	13.0	21.1	43.0	28.0	56.0	7.7	86.7	69.1	6.6	23.0
	공학	70.3	76.8	16.6	5.7	57.7	70.3	27.2	1.2	94.8	84.5	4.0	11.0
	자연	64.9	63.4	29.2	4.6	55.7	55.8	39.2	1.1	89.5	75.6	12.7	10.2
	의약	82.2	67.9	19.1	11.6	56.8	54.9	40.0	1.7	92.8	71.1	13.9	14.2
	교육(사범)	81.0	65.2	21.5	9.4	52.5	23.8	63.5	0.0	89.9	72.7	13.8	11.2
	예술/체육	70.1	43.2	34.2	19.5	42.0	17.6	70.6	7.4	84.6	49.3	25.5	22.4

주: 1) 임시는 일용직을 포함함.
2) 자영업은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모두 포함함.

□ 직장 유형

- 취업자의 직장 유형은 대학이 29.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는 민간기업이 21.5%로 나타남.
- 계열별로는 인문계열, 예술/체육계열, 자연계열의 경우 대학 취업자 비율이 각각 43.4%, 42.5%, 40.9%로 전체 취업자 중 40% 이상이 '대학'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학계열의 경우 36.3%가 민간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계열별 특정 직장으로

의 쏠림 현상이 나타남.

- 학업전념 취업자의 직장 유형을 살펴보면 대학 50.4%, 민간기업 21.6%로 대학 취업자가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계열별로는 인문계열 박사학위 취득자의 대학 취업 비율이 81.1%로 대부분이 대학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학계열을 제외한 타 계열에서의 대학 취업 비율도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다만, 공학계열의 경우 대학 37.7%, 민간기업 33.8%로 민간기업 취업자 비율이 타 계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6〉 직장 유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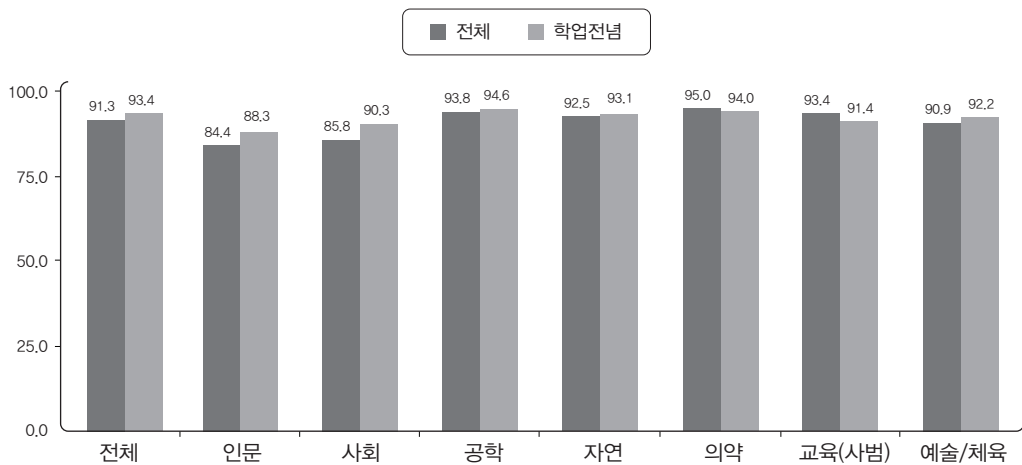
구분	전체								학업전념							
	전체	인문	사회	공학	자연	의약	교육(사범)	예술/체육	전체	인문	사회	공학	자연	의약	교육(사범)	예술/체육
대학	29.5	43.4	19.7	24.4	40.9	34.0	27.1	42.5	50.4	81.1	65.8	37.7	55.3	63.7	72.4	74.2
초중고	4.0	4.7	1.2	0.2	1.7	0.8	37.9	8.5	0.5	1.1	0.0	0.0	0.2	0.6	8.6	3.0
정부·지자치단체	5.6	3.3	8.8	5.1	5.8	3.0	4.4	6.6	1.5	1.1	1.9	1.4	2.0	1.2	0.0	1.5
공공연구소	6.0	0.5	3.1	10.6	11.0	2.1	1.2	0.3	7.7	1.1	3.7	8.5	11.2	5.4	1.7	0.0
민간연구소	5.8	1.6	3.2	11.6	6.8	2.2	1.0	0.9	9.0	1.1	3.1	12.9	8.2	3.6	0.0	0.0
공기업	3.8	1.4	7.3	4.6	2.5	0.7	1.5	3.1	0.7	0.0	1.2	0.8	0.6	0.0	0.0	1.5
민간기업	21.5	4.9	26.5	36.3	17.1	4.9	4.7	10.5	21.6	1.1	6.8	33.8	14.9	6.5	5.2	1.5
창업/자영업	4.9	5.8	9.8	2.9	2.0	2.8	2.2	12.5	1.3	0.0	3.7	1.6	0.6	0.0	0.0	3.0
기타 교육기관	2.6	5.8	3.2	0.3	1.7	0.6	12.8	4.3	1.0	2.1	4.3	0.2	0.4	1.2	5.2	4.5
병원 및 의료기관	8.2	1.1	1.4	0.7	6.1	46.4	0.5	0.6	3.1	0.0	0.6	0.9	5.1	16.1	1.7	0.0
재단/사단법인, 협회	3.1	7.7	7.0	1.4	1.8	0.8	2.2	3.7	0.8	1.1	3.1	0.5	0.2	1.8	1.7	1.5
기타	4.9	19.8	8.7	2.0	2.5	1.6	4.4	6.6	2.5	10.5	5.6	1.7	1.4	0.0	3.4	9.1

□ 업무와 전공 관련성

- 취업자 중 직장에서의 업무와 전공 관련성이 높다고 응답한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율이 91.3%로 대부분의 취업자가 전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계열별로는 공학, 자연, 의학, 교육(사범) 계열의 박사학위 취득자의 업무와 전공 관련성이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인문 및 사회 계열 박사학위 취득자의 경우에는 업무와 전공 관련성이 85% 내외로 다소 낮게 나타남.
- 학업전념 취업자의 93.4%가 전공 관련성이 높다고 응답하여 전체 박사학위 취득자 보다 학업전념자의 업무와 전공과의 관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계열별로는 공학계열은 업무와 전공과의 관련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9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문계열만 업무와 전공과의 관련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90% 미만으로 나타남.

[그림 3] 업무와 전공 관련성

(단위: %)



□ 임금근로자의 평균 임금

- 취업자의 전체 평균 임금은 5,257.4만 원, 정규직 6,419.5만 원, 비정규직 3,199.1만 원으로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 5,842.8만 원, 여성 4,132.1만 원으로 여성 평균 임금이 남성의 약 70.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과 여성 모두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계열별로는 의약계열의 평균 임금이 6,123.2만 원으로 가장 많고, 인문계열이 2,987.4만 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계열별 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큰 차이가 없으나,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의약계열 4,961.3만 원, 인문계열 1,793.3만 원으로 계열별 비정규직 간의 임금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학업전념 취업자의 평균 임금은 4,159.8만 원, 정규직의 경우 5,914.6만 원, 비정규직은 2,850.4만 원으로 학업전념자의 평균 임금은 전체 평균 임금의 79.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 4,694.5만 원, 여성 3,005.6만 원으로 여성 평균 임금이 남성의 64.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계열별로는 공학계열이 5,114.5만 원으로 가장 많고, 인문계열이 1,693.8만 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직장병행 취업자의 평균 임금은 5,949.5만 원, 정규직 6,599.3만 원, 비정규직 3,753.1만 원으로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이 정규직의 약 56.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 6,613.0만 원, 여성 4,760.7만 원으로 여성 평균 임금이 남성의 약 72.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계열별로는 공학계열 평균 임금이 6,962.7만 원으로 가장 많, 인문계열 평균 임금이

3,510,2만 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계열의 비정규직 평균 임금이 정규직 대비 45.7% 수준으로 임금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표 7〉 평균 임금

(단위: 만 원)

구분	전체			학업전념			직장병행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5,257.4	6,419.5	3,199.1	4,159.8	5,914.6	2,850.4	5,949.5	6,599.3	3,753.1	
성별	남성	5,842.8	6,787.6	3,570.5	4,694.5	6,178.0	3,217.2	6,613.0	7,032.3	4,334.9
	여성	4,132.1	5,442.5	2,771.3	3,005.6	4,877.9	2,305.3	4,760.7	5,580.8	3,300.7
전공계열	인문	2,987.4	4,386.7	1,793.3	1,693.8	3,444.4	1,471.8	3,510.2	4,466.1	2,082.3
	사회	5,648.1	6,676.6	2,565.6	2,261.2	4,224.1	1,719.0	6,187.1	6,778.7	3,205.0
	공학	5,912.4	6,831.0	3,455.0	5,114.5	6,325.2	3,361.4	6,962.7	7,263.7	4,027.8
	자연	4,286.8	5,599.7	3,110.6	3,826.3	5,382.4	3,132.6	5,108.8	5,752.3	3,014.9
	의약	6,123.2	7,003.5	4,961.3	3,658.5	4,833.3	3,214.3	6,817.4	7,269.7	5,980.4
	교육(사범)	4,468.0	5,508.0	2,113.6	1,888.9	3,636.4	1,441.9	4,950.3	5,616.5	2,568.2
	예술/체육	3,326.4	4,935.9	2,044.2	1,859.6	4,250.0	1,351.1	3,728.4	5,000.0	2,370.0

주: 1) 비정규직의 경우 풀타임과 파트타임 모두를 뜻함.
2) 전체는 임금근로자를 뜻함.

□ 구직 및 이직 활동

○ 구직 및 이직 희망자의 선호 직장 유형은 대학이 51.0%로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공공연구소(20.6%)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대학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의 경우 그 비율이 58.9%로 남성(45.1%)보다 13.8%p 더 높게 나타남.
- 계열별로는 공학 및 자연 계열을 제외한 전 계열에서 대학 선호 비율이 50% 이상으로 나타났고, 자연계열은 공공연구소 30.6%, 대학 34.1%로 대학 선호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공학계열은 공공연구소 35.5%, 대학 30.7%로 공공연구소 선호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

- 예술/체육계열의 경우 대학 취업을 선호하는 비율이 87.7%로 박사학위 취득자의 대부분이 대학 취업을 선호하여 직장 선택의 폭이 매우 좁은 것으로 나타남.

〈표 8〉 구직 및 이직 희망자의 선호 직장 유형

(단위: %)

구분	대학	초/중/고	정부·지자치단체	공공연구소	민간연구소	공기업	민간기업	창업/자영업	기타 교육기관	병원·의료기관	재단/사단법인, 협회	기타
전체	51.0	0.7	6.5	20.6	5.8	4.4	4.9	1.6	0.7	2.1	0.9	0.8
성별	남성	45.1	0.5	5.4	24.2	7.8	4.8	6.8	1.9	0.4	1.5	0.8
	여성	58.9	1.1	8.0	15.8	3.1	3.8	2.3	1.1	1.1	2.8	0.8
전공계열	인문	73.3	2.5	5.3	5.7	1.4	0.4	0.0	4.6	1.8	0.0	2.8
	사회	64.7	0.7	8.9	11.1	2.0	4.2	1.8	2.6	1.4	0.1	1.8
	공학	30.7	0.2	4.6	35.5	11.2	5.8	9.3	1.3	0.1	0.4	0.5
	자연	34.1	0.5	8.5	30.6	8.8	7.1	8.0	0.3	0.5	0.7	0.5
	의약	54.1	0.3	7.7	9.8	1.8	3.8	1.8	1.5	0.0	18.3	0.6
	교육(사범)	77.3	1.3	5.3	8.4	0.9	1.3	0.4	0.9	2.2	0.4	0.9
	예술/체육	87.7	2.0	4.0	2.0	0.8	0.0	0.8	0.4	0.4	0.4	1.2

□ 박사후과정 계획

- 박사후과정을 계획하고 있는 박사학위 취득자는 전체의 36.5%이고, 선호 국가는 한국이 74.6%로 박사학위 취득자 대부분이 국내에서 박사후과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 33.9%, 여성 41.1%로 여성의 박사후과정 계획 비율이 남성에 비해 7.2%p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사후과정 국가는 남녀 모두 한국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계열별로는 자연계열이 56.2%로 가장 많은 박사학위 취득자가 박사후과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계열이 25.5%로 박사후과정 계획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로 나타남.

- 박사후과정 국가는 전 계열에서 한국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학, 자연, 의약 계열의 경우 타 계열에 비해 미국을 선호하는 비율이 2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표 9〉 박사후과정 계획 및 선호 국가

(단위: %)

구분	박사후과정 계획	박사후과정 국가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기타	
전체	36.5	74.6	17.6	3.5	1.5	0.6	2.2	
성별	남성	33.9	72.1	19.8	3.8	1.5	0.4	2.4
	여성	41.1	78.3	14.3	3.0	1.5	0.9	2.0
전공 계열	인문	40.9	86.7	4.8	4.3	1.9	0.5	1.9
	사회	29.6	88.2	6.1	2.6	1.1	0.9	1.1
	공학	34.8	66.7	23.8	4.7	1.8	0.3	2.7
	자연	56.2	71.5	20.6	3.4	1.7	0.3	2.4
	의약	28.5	67.4	26.9	2.9	1.1	0.0	1.8
	교육(사범)	25.5	78.6	11.1	2.6	1.7	2.6	3.4
	예술/체육	40.4	86.3	8.8	0.5	0.5	1.6	2.2

V. 요약 및 결론

- 박사학위 취득자는 1980년대부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 2010년도 이후부터는 그 증가세가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지속적으로 양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이는 미국 내 한국인 박사학위 취득자 수가 2013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전문성 향상을 위해 박사과정에 진학한 박사가 전체 중 40.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학업전념자의 경우 43.9%가 연구를 수행하는 교수 또는 연구원이 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박사학위 과정 중 직장을 병행한 박사학위 취득자 비율이 높고, 평균 연령이 41.2세로 고령화되고 있음.
 - 미국 박사학위 취득자의 연령 중위수는 31.6세로,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 연령 중위수인 39.0세보다 7.4세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학업에 전념한 박사학위 취득자의 연령 중위수만 고려해도 33.0세로 여전히 미국 박사학위 취득자 연령 중위수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학업전념 박사학위 취득자의 고용률은 54.2%이며, 이들 중 주로 연구를 수행한다고 할 수 있는 대학 또는 공공/민간연구소에 재직하고 있는 비율은 67.1%에 불과함.
 - 결국, 연구 수행을 위해 박사과정에 진학한 학업전념자 중 약 35.4%만이 대학 또는 공공/민간연구소에서 교수 또는 연구원으로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구직 및 이직 희망자의 선호 직장 유형은 대학이 51.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공공연구소(20.6%)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내 고급 인력의 양적 성장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이 연구 활동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는 일자리는 매우 제한적이고 부족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국내 고급 인력의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및 연구 환경 조성이 절실함. 